



한가위 앞둔 농산물시장

태풍 '나리'가 휩쓸고 간 뒤 농촌의 시름이 깊어지지만 추석은 역시 민족의 대명절이다. 추석을 6일 앞둔 19일 광주시 북구 각화동 농산물시장에 제수용품으로 쓸 과일 상자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

/\*위작기자 jrwi@kwangju.co.kr

## 손학규 집거...TV토론회 불참 신당 경선 위기

동원경선 논란과 '당권 밀약설' 등으로 대통합민주신당 대선 예비후보 간 갈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손학규 후보가 19일 TV토론회 불참을 선언한 뒤 자택 집거에 들어가 신당 경선이 위기에 몰리고 있다.

특히 신당 경선 구도에 결정적 변수가 될 오는 29일 광주·전남 경선을 앞두고 손 후보의 집거가 후보 사퇴로 연결될 경우 신당 경선 흥행에 결정적 타격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관련기사 4·5면>

손 후보측은 이날 "손 후보가 오후 늦게 SBS TV토론회에 참석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고 해당 방송사에도 이같은 사실을 통보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손 후보의 한 측근은 "손 후보가 현재의 경선방식에 동의할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하지만 후보직 사퇴는 절대 없다는 입장을 직접 밝혔다"고 말했다.

측근들은 손 후보의 TV토론회 불참이 당내 경선이 조직선거·동원선거 양상으로 흐르고 있는 데 대해 당 지도부와 중진의원, 다른 후보 측에게 강한 항의를 표시한 것이라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당내 일각에서는 손 후보가 경선을 협의과정에서 여론조사 반영 비율이 10%로 결정된 후 "이런 경선에 참여해야 하나"는 입장까지 밝혔다. 손 후보가 고려했을 때 중도사퇴를 위한 수순으로 보는 시각도 없지 않다.

앞서 손 후보측 선대본부 부본부장인 김부겸 의원은 이날 오전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구태정치와의 투쟁을 선언하고 ▲당내 각종 의혹사태 진상조사위 구성 및 즉각 시정조치 ▲조직동원선거 방지책 제시 ▲국민참여 활성화 등을 위한 전당적 조치 강구 등 세 가지 요구사항을 내놨다.

신 손학규 캠프 인사들을 중심으로 김한길 의원 그룹이 정 후보 지지 선언한 것은 당권보장 대가라는 '당권거래설'을 제기되고 있어 또 다른 논란을 낳았다.

그러나 초반 경선 4연전 승리 이후 호남의 심석부인 광주에 '베이스캠프'를 차리고 승기 굳히기에 나선 정동영 후보는 이날 광주 5·18 기념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조직선거라는 주장을 입에 올린 것 자체가 흑색선전"이라고 일축했다.

한편 신당 국민경선위원회는 이날 경선과정에서 후보측이 이른바 '버스페기'로 불리는 교통편의 제공이나 식사 또는 금품 제공 행위가 적발될 경우 중앙선거위에 고발하기로 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 “무안국제공항 손님 없는 개항”

### 국제선 확보 미약·광주공항과 노선 갈등...초기 활성화 걸림돌

#### 광주~무안 고속도 개통 늦어져 접근 취약

국토 서남권의 대 중국·동남아 관련이 될 무안국제공항이 오는 11월 초순 개항할 예정이지만 광주공항과의 노선갈등에 따른 위상정립 문제와 국제선 확보 부족으로 초기 활성화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건설교통부와 서울지방항공청, 전남도는 무안국제공항을 오는 11월 10일 개항한다는 목표 아래 준비 절차를 밟고 있다. 그러나 광주공항과의

노선 분배 및 단기간에 국제공항의 면모를 갖추 수 있는 항공마케팅 부족으로 초기 부진이 우려된다.

가장 큰 문제는 무안공항과 광주공항의 위상 갈등이다. 개항 초기 무안공항이 국제선을, 광주공항은 국내선을 분담한다는 계획에 따라 전남도는 현재 광주공항에서 뜨고 내리는 중국 상하이·선양·창샤 2편씩 모두 주 6편을 무안공항으로 가져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 무안공항이 이같은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초기 집중적인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광주시는 무안국제공항이 자체적으로 새 노선을 개발 운영해야 하며, 기존의 광주공항 국제선을 가져 가면 안된다고 맞서고 있다.

광주시와 지역 관광업계는 "광주 국제선을 무안으로 옮길 경우 전북·전남 동부권 승객들이 인천공항 등으로 발길을 돌려 광주·무안공항이 공멸하게 될 것"이라며 반발했다.

여기에도 국내 항공사 가운데 일부가 무안공항으로 국내선 영업망까지 일원화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항공사 유치와 놓고 광주시와 전남도간 갈등의 골이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대륙을 왕복하며 잠시 무안에 기착하는 환승 항공편이어서 공항 활성화에는 기여하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나머지 취항 노선도 일본 후쿠오카, 중국 베이징 등 단거리 노선에 치중돼 있다.

전남도는 공항활성화를 위해 대중국 환적화물 확보를 통해 초기활성화를 노린다는 계획도 세웠으나 건의 수준에서 그친 채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

이와 함께 광주와 무안공항을 연결하는 고속도로도 공항이 문을 연 후 6개월이 지난 내년 후반이나 돼야 개통될 예정이어서 무안공항 초기 활성화의 마이너스 요인이 될 것으로 점쳐진다.

전남도 관계자는 "무안~광주고속도로 완공 이전 평동산단~서광산 교차로 250m구간만 포장하면 배후도로와 연결돼 광주까지 통행할 수 있지만 도로공사는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지경기자 unipark@kwangju.co.kr

#### 신정아 출국직전 변양균씨와 통화 檢, 주말께 영장 재청구

대검찰청은 19일 정상명 검찰총장 주재로 '신정아 구속영장 기각'에 따른 대책회의를 갖고 신정아씨에 대해 이번 주말께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관련기사 3면>

이귀남 대검 중수부장은 회의 직후 브리핑을 갖고 "신씨에 대한 보완 수사 후 영장 재청구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을 이날 재소환해 1차 조사에서 진술한 내용과 다른 부분을 따져묻고 뇌물수수, 제3자 뇌물수수, 직권남용, 업무방해 의혹을 집중 추궁했다.

한편 서울 서부지검은 19일 변 전 실장의 전화통화 내역과 신씨의 진술에서 신씨가 지난 7월 16일 미국 뉴욕으로 출국하기 직전 변 전 실장과 통화한 사실을 확인하고 변 전 실장이 협력위조를 은폐하기 위해 신씨를 피신시켰는지 확인 작업을 벌이고 있다.

/\*정후식기자 who@연합뉴스

#### 정운재 前 비서관 사전영장 청구

##### 수천만원 받은 혐의

건설업자 김상진(42)씨의 정·관계 로비 의혹을 수사중인 부산지검은 19일 김씨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정운재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관련기사 3면>

검찰에 따르면 정 전 비서관은 청와대 재직시절인 지난해 말과 올해 초 2차례에 걸쳐 김씨로부터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정 전 비서관이 지난해 7월 김씨를 정상군 전 부산지방국세청장

에게 소개해 주고 다음달에는 식사차리에 동석함으로써 세무조사 무마청탁을 할 수 있도록 수천만원 대가료이 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부산지법은 이날 검찰이 청구한 정 비서관에 대한 구인영장을 발부, 검찰이 정 전 비서관의 신병을 확보하는 대로 구속전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실시하기로 했다.

통상 구인영장 발부 후 1~2일 안에 심문이 열리는 것을 감안할 때 정 전 비서관에 대한 구속전 심문도 20일 중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뉴스

우일대입학 장학 57만 원 시상식 진행  
남부대학교  
www.namju.ac.kr  
진남과학대학  
www.jinam.ac.kr

엔탑이비인후과병원 ENT HOSPITAL  
속 병원 승격 2007년 8월 1일  
2007년 8월 1일 의원에서 병원승격이 되었으며, 이비인후과 종합검진 및 이차검진 검사실을 개설하였습니다.  
www.enttop.co.kr